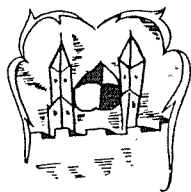




번역의 물결이 넘치는

(구) 소련

(2)



배순덕

셋째날에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70km정도 떨어져 있는 불가강 일대의 작은 도시 자코르스크에 다녀왔다.

그 일대에는 자코르스크 말고도 중세 러시아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야로슬라블, 로스토프, 스즈달, 블라디미르 등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古都)들을 연결해 보면 거의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황금의 고리라고도 불리운다. 자코르스크시는 그 중의 하나이다.

본래의 이름은 세르기예프였으나 1930년에 혁명가인 자코르스크(1883~1919)의 이름을 따서 바꾼 것이 지금의 도시명이 되었다. 러시아 정교회(正敎會)의 총 본산지인 자코르스크시에는 약 9만7천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시내중심가에는 '트로이체세르기예프(성 세르기예프 삼위일체 수도원)'가 있다.

차가 멈춰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담장너머로 우뚝 솟아있는 양파모양을 한 사원의 지붕이다. 수도원 담장아래에는 승용차들이 열을 지어 주차해 있고, 그 앞 넓은 광장에 들쭉날쭉 앉아 있는 기념품 행상들의 좌판에는 거의가 비슷한 품목의 물건들이 놓여있다. 체스, 인형, 향로 모양의 커다란 물병과 기념뱃지 등... 그 중에서도 나무를 깎아 만든 인형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대머리 모양을 한 고르바초프의 인형도 있었다.

볼링핀 정도의 크기에서부터 손가락만한 것까지 크기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인형의 뚜껑을 열면 양파껍질을 벗길 때처럼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같은 모양의 인형들이 차례로 쏟아져 나온다. 현직 국가 원수의 모양을 본뜬 우스꽝스러운 인형이 좌판 위에서 관광객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것을 보고, 책을 통해서 느껴왔던 ‘스탈린’이나 ‘브레즈네프’ 시대와는 달리 경직되지 않은 통치자의 넉넉함이 느껴져 왔다.

수도원은 한번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서인지 여러 시대 여러 양식의 다양한 건축물이 화려하고도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였으나, 어느 한 시대를 대변하는 통일감은 없어 보였다.

16세기에 축조되었다는 널찍한 담장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중앙에 1585년 이반 4세가 명령하여 지었다는 우스펜스키 사원이 있고, 왼쪽 뒤로 1423년에 세워진 트로이츠키 사원이 있다. 트로이츠키 사원 옆에는 이층으로 된 두호푸스카야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1477년에 세워진 것이고, 차 궁전과 스몰렌스카야 교회는 그것보다 이백칠십년 후인 1748년에 세워진 것이다.

소련의 교회는 국가와 학교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반(反)종교선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한 자유가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볼셰비키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된 후인 1920년대에 러시아 정교회(천주교)는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탄압을 받았고, 수 많은 이슬람교 사원들이 파괴되었다. 1930년대부터 종교의식이 묵인되



▲ 자코르크크, 트로이체 세르기에프 수도원 안에 있는 「우스펜스키」사원.
「우스펜스키」 사원은 1585년 이반 4세의 명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가 고르바초프 집권기인 1988년 4월, 비로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그 동안 폐쇄되었던 수백개의 교회건물이 복원된 것이다.

이제 소련의 성직자는 평화운동자로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트로이체세르기에프 수도원 내에는 모스크바 신학대학과 신학교가 부설로 되어 있다.

사원 안에는 사람이 많았다.

평일인데도 구석구석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우리처럼 안내인을 대동한 외국관광

객도 있고, 나들이를 나온듯한 내국인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지 순례자처럼 이 곳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 것 같았다.

우리 일행의 안내와 통역을 맡은 사람은 모스크바대학의 한국어학부 학생인 콘스탄티였다. 그는 우리 말이 서투르고, 엉뚱한 곳에서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많았다.

깊이 없이 형식에만 얽매어 관람하는 것이 싫어서, 나는 일행을 이탈하여 혼자서 수도원 안을 돌아다녔다.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서 누구에게 물어 볼 수도 설명을 들을 수도 없었지만 병아리처럼 콘스탄티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그 편이 오히려 편하고 재미가 있었다.

양파모양을 한 푸른색과 황금색의 지붕을 가진 우스펜스키사원은 마치 만화영화나 동화 속에 나오는 궁전같이 환상적인 느낌이 들었다. 수도원의 중간 쪽에는 우물이 있고 그 우물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서서 제각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맞은 편에는 중년 여인이 젊은 여자를 바닥에 앉혀 놓고 머리 위에 무엇인가를 뿌리기도 하고 웅얼웅얼 주문을 외며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등 이상스런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중년의 표정과 몸놀림은 우리나라의 무녀를 연상시켰다.

성수(聖水)가 나온다는 작고 어두운 방 앞에는 사람들이 꾸불꾸불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 언제 차례가 되려나 염려스러

울 정도로 줄이 길었는데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줄의 끝을 찾아서 끊임없이 모여 들었다.

뜨거운 팔월의 피약별 아래 그들도 없이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그들의 표정은 기대와 설렘으로 빨갛게 상기되어 보였다. 나도 마침 목이 마르던 터라 그들과 어울려 물을 한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물맛에 등에 흐르던 땀이 한 순간 멈추는 듯 했다. 우리나라의 시골 어디에 가든지 쉽게 맛볼 수 있는 웅달샘 물맛이어서 더욱 그랬다.

밭길을 돌려 사원 안의 교회로 들어갔다. 킁킁한 교회 안쪽 깊숙한 곳에서부터 촛불이 반짝거린다. 다가가 보니 커다란 촛대 위에 꽂혀진 여러 개의 양초, 그리고 그것을 쫓아놓고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성호를 긋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내부는 밖의 북적거림과는 달리 매우 한산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일렁이는 촛불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맑은 눈빛들이 있었다. 그러한 눈빛을 나는 중국의 한산사(寒山寺)에서도 본적이 있다. 인종과 종교는 달라도 기도의 경건함과 그 내면에 흐르는 무엇인가는 강물이 바다에서 모이듯이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안의 벽면은 성화와 여러가지 무늬의 그림들로 꽉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는 동안 무언가 알 수 없는 숨결이 바람처럼 가슴안에 스며들어 왔다.

트로이츠키사원 안에는 '삼위일체'로

유명한 러시아의 화가 「안드레이루브로프」의 벽화가 있다고 했다. 헌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니, 보긴 봤는데 내가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치형의 둥근 천정에 여러겹의 두터운 벽으로 이루어진 수도원의 입구에서부터 미술책에서나 보아왔음직한 성화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감탄을 하며 바라보았던 그림들을, 사원 안을 돌며 거듭 접하게 되자 얼떨떨한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는 이 그림이 저 그림같고 모두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에 슬쩍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여기저기 비슷한 내용의 성화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 순간 조금해져서 중복하거나 혼동하여 보는 경우도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로 되돌아오는 길에 간단한 요기를 하기 위해 모스크바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들렀다.

버스를 내려 식당으로 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데, 후줄근한 옷 차림에 8~9세쯤 되어 보이는 소년 서너명이 재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무얼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뱃지나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것을 건네주며 과자와 교환하자고도 했다.

일행 중에 누군가가 그에 응해주자 어디선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우루루 몰려와 순식간에 십여명이나 되었다. 아이들은 뗏자국에 얼룩진 빈손을 내밀며 막무가내

로 무얼 달라고 했다. 마치, 육이오를 거친 후의 굶餓한 시대에 있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했다.

너 나할 것 없이 모두들, 먹고 사는 일에 정신까지 송두리채 쏟아 부어야만 했던 육십년대 초반이었다. 뚜껑없는 지프차를 타고 다니며 초컬릿이나 껌을 건네주던 미국 군인들과, 그 차 뒤를 줄줄 따라다니던 아이들이 있었다.

그 때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빵이었고, 어린 눈에 비춰진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부(富)와 행복을 가진 먼 나라의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소련의 아이들을 보자 삼십여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어چه 일처럼 생생히 되살아났다.

해방과 남북분단 그리고 전쟁, 동서냉전 등...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련은 감히 비교될 수도 대항할 수도 없는 강대국임에 틀림없었다.

그러한 인식 속의 소련 아이들이 우리 앞에 손을 내밀어 과자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안스러워 주머니에 있던 사탕과 초컬릿을 마저 꺼내주었더니 아이들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히 채우며 나뻑채듯이 들고 뛰어간다.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역사는 등글어서 빙글빙글 순환을 한다고 하지만 체 오십년도 안되는 역사의 아이러니에 가슴이 서늘해져 왔다. ㉠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